



※이 글은 1969. 9. 18-19 양일간 청주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전국 공공도서관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임. (편집자 주)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의 大衆化 方案

金 榮 朝
(서울特別市立鍾路圖書館 司書官補)

<目 次>

- 一. 머릿말
- 二. 現代 公共圖書館의 새로운 使命.
- 三. 圖書館, 圖書館人의 姿勢
 - 1. 施設 및 環境
 - 2. 資料擴充
 - 3. 圖書館人과 奉仕精神
- 四. 大衆化 方案
 - 1. 圖書館 P. R.
 - ① 印刷物 利用
 - ② 매스·콤 利用
 - ③ 揭示板, 포스타 利用
 - ④ 陣列窓 利用
 - ⑤ 遊興場 利用
 - ⑥ 輿論造成
 - 2. 入館料와 館外奉仕
 - 3. 參考奉仕와 視聽覺 施設
 - 4. 巡廻文庫
 - ① 家庭巡廻文庫
 - ② 職場巡廻文庫
 - ③ 移動文庫
 - 5. 씨어클 活動과 讀書運動
 - 6. 文化行事 主管, 誘致
 - 7. 어린이 圖書館과 主婦閱覽室
- 五. 맺는 말

一. 머릿말

이번 행사를 마련하시느라고 勞苦가 많으신 本 淸州市 立圖書館 職員 여러분에게 敬意를 표합니다. 또 遠路에서도 이처럼 많이 參席하셔서 盛況을 이루어 주신 圖書館人 同志 여러분에게 激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덟 번 제로 맞이하는 全國圖書館大會에서 歷史的인 이 時間에 淺識한 제가 이 아담한 教育都市 淸州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 드리게 된 것을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機關에서나 그들이 週間을 設定해서 많은 經費와 많은 人力을 消耗하면서 까지 多彩로운 行事を 實施한다는 것은 그들 共通의 目的과 意義를 더 한층 새롭게 認識하고 지금까지의 活動에 대한 反省과 批判을 加하여 앞날의 보람있는 發展策을 講求하는 重大한 契機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번 大會를 통해서는 보다 뜻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고 보다 좋은 結果를 맺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議題는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大衆化 方案”입니다. 過去에도 이와 類似한 論題로 여러번 좋은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共圖書館의 大衆化라고 하는 問題는 우리가 期必코 達成해야 할 너무나도 宿命的인 課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覺醒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 機會에 大衆化에 앞선 姿勢로부터 大衆化의 實際的인 方案까지를,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한번 더 들어 보셔서 좋은 意見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眞摯하게 討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二. 現代 公共圖書館의 새로운 使命

現代의 公共圖書館이란 單純한 冊의 貯藏所이거나 保管所가 아니라 各種의 整備 組織된 資料들을 地域社會의 모든 住民에게 보다 빨리 提供해서 自由로써 平生을 통하여 自己教育을 꾀할 수 있도록 適切한 機會를 베풀어 주고 多角的인 最善의 奉仕로써 도와주어야 하는 機能과 使命이 賦與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은 物質文明과 精神文化가 極度로 發達한 知識의 氾濫과 飛躍된 雰圍氣 속에서 살고 있는 現代人은 實로 많은 問題에 부딪치게 되니 만큼 스스로 一生을 통하여 自學의 길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民主主義 制度下에서는 主權을 行事하는 國民全體의 知的 向上이 더욱 切實한 것입니다. 科學技術은 말할 것도 없고 人文 社會등 諸 分野가 寸刻을 다투어서 急進展하는 現代 社會에서 知識을 追求하지 않고서는 生活隊列에서 落伍될 것이며 올바른 生을 營爲할 수 없음을 明白한 事實입니다.

이와 같은 知識과 情報의 寶庫이며 靈의 糧食을 提供하는 公共圖書館이 아무런 差別도 없이 地域住民 모

두에게 언제나 자유로히 最善의 方法으로 資料와 密着시켜 주고 보다 많이 讀書할 수 있도록 環境을 만들어 줌으로써 住民의 知的 向上으로 賢明한 市民性과 豊足한 人間生活을 增進케 하여 地域社會의 文化 乃至는 産業開發을, 나아가서는 國家와 民族의 繁榮을 위해서 莫重한 實益을 가져오겠끔 하는 것이 現代의 公共圖書館이 지닌 使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三. 圖書館, 圖書館人의 姿勢

오늘 날의 圖書館 특히 公共圖書館이 맡은 바 任務를 充實히 履行하려면 圖書館의 基本要素인 施設, 資料, 사람에 대한 事前 態勢가 確立되어 있어야 함은 再論을 요치 않으나 現實情을 勘案해서 本來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最少限度의 上記 세 가지 뒷받침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地域社會人에 對한 奉仕活動을 漸次 活潑히 展開시켜 나아가갈 수 있는 土臺가 될 것이며 知的 啓發을 向上시킬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1. 施設 및 環境

“圖書館은 成長하는 有機體이다”라고 랑가나단(S.R. Ranganathan)은 그의 圖書館學의 五原則(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에서 밝혔습니다. 즉 資料의 生産과 利用者의 增加에 따라 圖書館은 規模가 成長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圖書館의 構造는 流動性 있고 將來를 豫想하는 計劃下에 擴張의 餘地를 充分히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美國圖書館協會에서 刊行한 Public Library Service에서 “公共圖書館의 建物は 魅力的이어야 하며 利用하기 便利하고 뚜렷히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圖書館 建물이 視覺의 으로 선뜻 눈에 띄어서 好奇心을 불러 일으키는 心理的인 效果를 動員시킨 것이며 또 쉽게 出入할 수 있다고 하는 親近感을 느낄 수 있도록 한 表現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圖書館 施設面에 있어 가장 앞서서 생각되어야 할 根本要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大都市에 있는 몇개의 公共圖書館을 除外하고는 學皆의 圖書館이 獨立된 建物조차 維持하지 못하고 겨우 他建物에 칸 막이 정도로 막고 책상과 결상을 늘어 놓아, 셋방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實情이니 魅力을 느끼게 함은 且置하고, 있는 實情 그대로서 깨끗이 丹粧하고 周圍에 나무나 花草로 잘 가꾸는 등 外觀上으로나마 말쑥히 端整해서 좀 색다르게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奉仕할 수 있는 施設로 面目을 刷新하기 위해서는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豫算의 뒷받침

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積極的이고 實踐性 있는 行動으로 最大의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며 72年을 마지막 해로 裝飾하는 圖書館 設置 五個年 計劃과 그 이후의 國家計劃에 期待해 볼 바 큰 것입니다.

2. 資料 擴充

圖書館이 文化의 溫床地라고 誇示할 수 있는 것은 整理된 많은 資料를 蓄積하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全世界 人類社會에서 時刻를 다루어 潮流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莫大한 資料를 모두 收集한다 함은 不可能한 일이지만 가장 적은 費用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資料를 提供해야 한다는 使命感으로 因해 選擇이라고 하는 技術的인 問題가 自然히 隨伴하게 됩니다. 公共圖書館의 奉仕對象이 그 地域社會의 各界 各層으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圖書館 資料는 어느 정도 이들의 要求에 應할 수 있어야만 제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美國의 圖書館學者 헤인즈(Helen E. Haines)는 資料選擇에서 “그 地域社會의 一般的이고 또 特殊한 性格을 把握하며 住民들의 興味나 一般的인 關心을 把握하라”고 한 말을 想起해야 할 것입니다. 一般的인 것은 어느 地域社會에서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그 地域의 特殊性을 最大로 살려야 하겠습니다. 一般的이란 敎養物을 爲始해서 古典과 現代에서 最良의 小說을 包含하며 時事問題, recreation, 나아가서는 家庭生活과 直結되는 모든 資料를 말하는 것이며, 特殊性이란 그 地域의 鄉土的인 資料는 물론이고 農村에 가까운 都市면 새로운 農耕法과 畜産에 關한 資料를, 産業都市면 生産活動에 새로운 情報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工場이 많은 都市면 모든 職工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資料를 備置해야 할 것입니다.

圖書館에 整理된 藏書의 量이란 一般大衆들의 圖書館 利用에 가장 即刻的인 影響이 波及되는 것은 當然한 歸結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利用者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없다고 할 때 그가 失望해서 되돌아 감은 말 할 것도 없고 다시는 圖書館을 찾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顧客들이 失望해서 되돌아 감이 없이 興味와 熱意를 갖고 圖書館을 出入할 수 있도록 우리는 時急히 이에 所要되는 資料 購入費만큼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確保해야 하며, 豫算을 다루는 關係者들이 納得할 수 있는 細密한 計劃을 세워 年次的으로 藏書의 充實을 期함이 急先務인 것입니다.

資料 擴充을 위한 豫算을 地方自治團體에만 依存해서는 現實情으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여기에서는 漸次的으로 擴充해 나아가갈 것이며, 다른 方法로도 이 火急한 問題의 解決策을 講究해야 하겠습니다.

다. 그 地域出身 國會議員이나 事業에 成功한 人士들로부터 “내 故鄉의 發展을 위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援助를 얻을 수 있고 또한 學校나 敎會系統을 通하는 等 多方面으로 圖書收集運動을 벌려 單 한 卷의 冊이라도 더 쌓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達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 圖書館人 自身들의 力量과 理解와 說得을 시킬 수 있는 積極的인 熱意가 뒤따라야만 하겠습니다.

3. 圖書館人과 奉仕精神

施設이 아무리 잘 되어 있고 資料가 豊富하고 充分한 豫算의 뒷받침이 있어도 이를 運用하는 組織과 奉仕가 缺如되어 있다면 그 圖書館은 한낱 倉庫에 지나지 않는 無意味한 存在로 廢虛化하고 말 것입니다.

圖書館이 賦課된 機能을 發揮하고 目的을 達成하려면 合理的인 運營과 그 組織이 要件이 되겠는데 이 組織에 生命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우리들 圖書館人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圖書館人은 새 時代에 寄與할 수 있는 文化의 일꾼으로서 地域社會의 福利와 發展을 위해 活動하며, 그 고장 住民들 또는 團體들에게 讀書資料를 提供하여 그네들의 知識과 能力啓發에 이바지 함으로서 人類社會에 貢獻한다는 것이 窮極的인 責任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圖書館人은 透徹한 奉仕精神과 꾸준한 勞力, 그칠 줄 모르는 熱意, 勤勉性, 그리고 博學한 知識과 그 地域社會의 모든 實情에 關해 正確한 判斷力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資質을 必須條件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의 沈滯原因이 當局의 沒認識과 無誠意로 인한 人事行政 등, 政策의 貪困에서 온 結果라고 하는 것은 否認 못할 것이나, 돌이켜 이를 辨明하기에 앞서 圖書館에 直接 關與한 圖書館人 自身들이 荒蕪地를 開拓해 나아간다고 하는 自負心과 意慾 그리고 創造的인 勞力과 技術로서 꾸준히 前進시키려는 마음의 姿勢가 缺乏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反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보다 根本的인 責任은 우리들 自身에게 있음을 우리는 自認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原因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于先해서 待遇問題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奉仕를 받아야 할 住民들은 外面한체로 있는데 奉仕精神이라는 一念만으로 職員들의 犧牲的인 苦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5, 6名 심지어는 2, 3名의 職員으로 그 넓은 地域을 相對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無理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技術職種에서와 마찬가지로 技術手當과 같은 特別手當이라도 더 支給해 주어서 一生을 安心하고 圖書 속에서 獻身할 수 있도록, 함께 團結하여 成就하도록

勞力해야 되겠으며 그리고 最少限度의 增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不滿에서 公共圖書館의 一部層은 消極的인 風潮, 劣等意識, 더욱이 賤職視하는 殘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悲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眞正한 奉仕精神으로 武裝해서 人類社會 發展에 貢獻한다고 하는, 누구도 追從할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聖職視하며 圖書館事業을 營爲해 나가는 限, 우리는 矜持와 信念을 가지고 前進으로 沮喪하는 諸般 障壁을 突破할 수 있고 社會에 呼訴 說得시킬 수 있는 熱意와 迫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努力과 奉仕精神에 立却한 눈부신 活動으로 社會에 앞장 서는 旗手로서 地位와 氣風을 우리 스스로가 發展 向上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四. 大衆化 方案

圖書館을 알지 못하는 사람, 圖書館의 存在價値를 認定은 하나 利用할 줄 모르는 사람 또는 利用 안하는 사람들은 圖書館을 흔히 “圖書館은 學生들만이 가서 工夫하는 곳이다”라고 斷定해 버리는 이러한 頹廢的인 認識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圖書館이란 정말로 市民 누구나 다 쉽게 出入할 수 있는 곳이며 圖書館을 利用함으로써 民主市民의 一員으로 文化的인 人間生活을 滿喫할 수 있다고 하는 儼然한 事實을 認識시킨다고 하는 것이 現時點에서 當面한 가장 큰 課題인 것입니다. 이를 打開해 나가기 위해서는 過去와 같이 圖書館 안에서 利用者가 찾아 오기를 기다리는 安易한 方法에서 完全 脫皮하여 “資料”와 “奉仕精神” 이 두 가지를 가지고 館밖으로 뛰쳐나와 보다 積極的인 態度로 地域社會에 挑戰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方案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합니다.

1. 圖書館 PR

圖書館의 目的을 效果의으로 達成하기 위해서 諸般 機能을 一般에게 周知 宣傳하여 理解를 求하고 信賴와 支持를 얻어 積極 利用하도록 努力하는 弘報活動이 圖書館에서의 PR이라 하겠습니다.

要是 어떻게 하면 地域社會에 깊숙히 浸透해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大衆을 어떤 方法으로 吸收하느냐? 가 PR의 基本要件인 만큼 圖書館 PR의 重大性이란 다시 說明드릴 必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圖書館의 PR活動은 恒常 住民들의 關心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深大하게 그리고 繼續적으로 實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圖書館 PR의 實際의인 方法을 要約해서 羅列해 보고자 합니다.

① 印刷物 利用

이는 가장 普遍的이고도 經濟적으로 容易하게 效果를 얻을 수 있는 傳達手段이 되겠습니다. 種類로서는 베라, 카렌타(포켓용, 한 장으로 된 年曆), 그림 葉書, 列車時間表, Book Mark 등에 圖書館 事業을 案内하는 句節이나 標語같은 것을 印刷에 넣어서 新聞 配達時나 其他 그 地域社會 事情에 따라 適切히 配布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圖書館 案内書, 館報, 年報, 藏書目錄까지도 作成 配付하여 널리 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② 매스·콤 利用

그 地方에서 發行하는 新聞에 圖書館에 關한 記事를 隨時로 寄稿하고 週一回만이라도 紙面을 割愛 받도록 努力해서 新着圖書案内 또는 有用한 藏書를 案内하는 것도 效果의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地域에 放送局이 있다면 圖書館 案内에 對한 푸로나 Spot를 放送할 수 있도록 交渉함도 대단한 效果를 얻을 것입니다. 商業放送이면 몰라도 國營放送이라면 協助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農村의 有線放送施設을 利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成果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나는 어린아기가 CM으로 放送되는 菓子類나 藥品名을 중얼대고 의우며 또 兒童들이 童遙보다도 CM Song을 더 잘 아는 것을 보아도 效果가 얼마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放送內容은 圖書館에 接近해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 編成과 案内, 그리고 刺戟的인 標語같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Spot로 내 보낼 案内의 例로서 “○○圖書館에는 값비싼 寶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圖書館에는 가장 人氣있는 新刊書籍들이 많이 準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幸福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길은 ○○圖書館에 오셔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生活에 疑問나는 點은 ○○圖書館을 찾으십시오, 電話는 천 이백 삼십 사 電話는 1234”, 標語로서는 “冊 속에 사는 길이 있다.” “冊 읽으면 내 生活 幸福해진다.” 등등. 여기서 銘心해야 할 것은 圖書館의 電話番號는 記憶하기 쉬운, 잊혀지지 않는 番號로 特別히 交渉를 해서 電話番號簿를 일일이 찾지 않고도 接近해 올 수

있도록 함이 重要한 일입니다.

③ 揭示板, 포스타 利用

地域社會 要所마다 즉 사람들이 많이 往來하는 驛前, 市場, 繁華街, 運動場 등에 따로 獨立된 揭示板을 設置하여 圖書館으로 誘致할 것이며, 포스타는 걸거리의 담벽, 會館, 病院, 工場……에, 特別히 劇場프로그가 나붙은 곳에는 반드시 그 옆에 붙이실 것. 포스타만 따로 붙어 있으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스쳐가는 傾向이 많으니 特別히 劇場프로그가 붙어 있는 곳에는 깃게 반드시 그 옆에 붙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襪色하기 前, 月에 한 번씩이라도 디자인을 틀리게 해서 一年 내내 揭示함이 좋겠습니다. 포스타는 印刷를 하면 勿論 좋겠습니다마는 費用이 許諾치 않을 때에는 白紙를 사다가 우리가 直接 물감으로 그리십시오.

이들의 內容은 圖書館의 位置, 開館시간, 標語 등으로 簡明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新聞의 部數가 餘有있으면 市內 要所에 新聞揭示板을 따로 設置해서 各種 新聞을 每日 揭示하여 圖書館 事業의 認識을 새롭게 함도 效果가 있을 것입니다.

④ 陣列窓 利用

圖書館 建物 以外로 市街地에 있는 會館이나 銀行, 其他 公共建物에 陣列窓(Show-window)이 있다면 잘 交渉해서 圖書館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즉 收入된 新刊圖書의 케이스를 排列하는 등 新刊 案内 兼 圖書館 活動을 案内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른 商品이 이미 陣列되어 있더라도 잘 說得을 시켜서 한 쪽 구석이라도 빌려 圖書館에 대한 몇字 文句와 冊 케이스 몇개만이라도 陣列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해 볼 것 같습니다.

④ 遊興場 利用

茶房, 食堂, 카바레 등 遊興場에 까지도 우리는 손을 뻗어야 하겠습니다. 포스타와 같은 案内物을 揭示할 수 있도록 妥協하고 또 劇場에서는 圖書館의 重要性和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案内를 視覺적으로 보기 수월하도록 그림이나 만화같은 것을 섞어서 몇장의 slide로 만들어 幕間을 利用해서 活用하면 大擘한 效果를 얻을 것입니다. 交渉하는 方法은 “우리 고장이 보다 잘 살기 위한 것인데” 하는 식으로 執念있게 說得하면 아무리 營利를 위한 劇場主라도 順應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可能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⑤ 輿論造成

우리 圖書館人은 때와 場所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意識的으로 圖書館 이야기를 끄집어 내야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건 어느 座席에 가진 恒常 圖書館 이야기로 話題를 登場시켜서 저절로 圖書館에 가 보고 싶도록 好奇心으로 衝動을 일으키게 해서 그들을 誘引해야 하겠습니다. “요샌 참 圖書館에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와!” 등의 話術로, 이렇게 하면 입에서 입으로 傳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圖書館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하여 輿論을 造成해 보자는 것입니다.

2. 入館料와 館內奉仕

圖書館은 所藏한 資料를 가장 迅速 容易하게 地域住民에게 提供해 준다는 無料開放의 公共施設이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大衆과의 遠隔한 사이를 助長하고 있는 크나 큰 障壁이 바로 入館料를 徵收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圖書館法 第8條에서 提示하고 있는 이 徵收問題는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原則的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例外로 特別한 境遇에만 “받을 수도 있다”라고 解釋해야 옳을 것입니다.

文化 教育事業, 特別 開拓期에 있는 圖書館 事業에서 歲入에 別로 보탬도 되지 못하는 使用料를 徵收한다고 하는 固陋하고 官僚的인 思考方式은 寒心스러우며 圖書館에 對한 印象을 흐리게 할 뿐이니 하루 속히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나 圖書館法을 改正해서 이 障害의 要素를 撤廢해야 하겠습니다.

圖書館 建物이 魅力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外觀上은 勿論이지만 內部施設에도 適用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利用者에게 좋은 印象이 들도록 努力해야겠습니다. 첫째 清掃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室內 彩光이나 壁과 天井의 彩色까지도 留意해야 하겠고, 곳곳에 花盆이나 觀賞木을 놓아두며 壁을 利用해서 圖書館利用法, 그 地域社會의 立體地圖나 世界의 名畫, 또는 冊을 읽어야 한다는 標語같은 것을 걸어 둔다든가 해서 環境整理에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新刊이나 많이 읽히는 圖書는 直接 展示를 해서 利用者가 손 쉽게 接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이며, 冊表紙(Book Jacket)에 請求番號를 큼직하게 써서 展示板에 掲示하고 또 冊 케이스에도 請求番號를 써서 보기 좋게 排列해 주면 카이드를 일일이 찾지 않고도 利用者는 쉽사리 自己가 希望하는 圖書를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申請된 圖書館 利用者가 기다릴 사이 없이 敏速하게 貸出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備置되어 있지 않은 圖書를 要求해 오면 내 집이나

親舊, 親知의 書齋에서라도 빠다가 提供해 줄 수 있는 親切과 好意를 배풀어 주어서 한 번 찾아온 손님이 期待를 갖고 繼續 出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一般 成人들의 座席을 다만 몇席이라도 언제나 따로 마련해 두어서 “圖書館은 學生들이 다 차지해서 가봐야 들어갈 수도 없다”는 因襲的인 印象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도록 一般 成人層을 더 優待해서 漸次로 誘致해야 되겠습니다.

여하간에 利用者 누구나가 親近感을 가지고 安定되고 조용한 雰圍氣 속에서 讀書할 수 있도록 諸般 施設을 改善하는 등 最大의 奉仕와 最善의 環境整理를 恒常 念頭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3. 參考奉仕와 視聽覺 施設

오늘 날과 같이 資料의 範圍는 極度로 擴大되었고 그 內容도 無限히 깊어져서 利用者가 希望하는 알맞는 資料를 찾아내기란 煩雜한 手段과 時間을 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圖書館의 奉仕活動은 各 利用者에게 直接 援助하는 參考業務가 自然發生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參考奉仕란 어떤 形式으로든지 利用者를 直接的으로 도와주는 圖書館 活動으로서 圖書館 利用法, 資料의 紹介, 參考文獻과를 連結시켜 준다든가 또는 어떤 特定 主題나 一般的인 質問에 對答해 주는 것이며, 讀書指導, 職業에 관한 資料나 獨學을 위한 資料를 案内, 指導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日常生活과 直結한 質疑에 應答해 주어야 하는 등, 이는 公共圖書館 모든 機能에 主體가 되며 地域住民들과 가장 緊密하게 接洽할 수 있는 契機가 되는 것이므로 機會를 놓치지 말고 最大로 親切하게 活用 奉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實情으로는 施設, 資料 參考司書의 不足으로 參考奉仕를 하고 있는 圖書館은 不過 몇個館 밖에 안되지만, 우선 施設面으로는 一般 閱覽室의 一部를, 그것도 困難하면 職員의 冊床을 차지하고서라도 利用者에게 또는 未開發層에 까지 參考奉仕를 周知시켜 段階的으로 開拓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圖書館이 圖書를 主로 하는 記錄物만을 利用者에게 提供한다는 것은 이미 過去의 奉仕方法이라고 하겠습니다. 放送施設과 音樂鑑賞, 映畫上映, 幻燈, 寫眞展示를 할 수 있도록 施設하며, 나아가서는 科學室, 實驗室까지도 圖書館에 設置하여, 이와같은 視聽覺機械를 通해서 利用者들의 知的 欲求를 充足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上記 施設을 모두 갖춘다는 것은 아직 어려운 實情입니다마는 最少限度로 라디오가 附着된 擴聲器 정도

는 마련해서 스피카를 屋外에 設置해 놓고 每日 아침 開館 直前까지 아침의 音樂을 보내준다든가 圖書館의 利用案内, 活動事項 등을 마이크를 통해서 알려주며 또한 한 時間에 한 번씩 뉴우스를 방송해 준다든가 重大한 中繼放送 같은 것을 보내준다든가 圖書館 近處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圖書館에 對해서 새로운 認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또한 빨리 情報를 提供 傳達해 준다든가 本來의 使命을 達成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市民과 直接 接할 수 있는 捷徑이 될 것입니다.

4. 巡迴文庫

資料의 保管爲主에서 活用爲主로 圖書館의 奉仕手段이 變遷된 오늘 날, 巡迴文庫制度를 實施한다는 것은 現代 公共圖書館에 賦與된 使命 가운데 제일의 目標에 達成할 수 있는 活動이라고 하겠읍니다.

書庫 속에 갇혀 있는 資料들을 館 밖으로 끌어 내다가 利用하겠끔 한다는 積極的인 奉仕는 所藏된 知識을 보다 容易하게 널리 大衆에게 密着시켜 줌으로써 圖書館에 대한 認識과 共感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利用意欲을 북돋아 줄 수 있음과 同時에 圖書館과 地域住民과의 隔離된 感情과 距離를 解消, 短縮시키는 唯一한 路로서 가장 뜻있고 보람있는 일이 되겠기에 資料의 貧困이나 職員의 不足함을 앞세우기 前에 果敢하게 이것만은 實踐해 보자고 呼託하는 바입니다.

① 家庭巡迴文庫

이것은 書庫 속에 있는 圖書를 家庭까지, 즉 書庫에서 부터 안방으로 까지 보내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實行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가지 豫期치 못한 難關이 뒤따를 것이고 中途에 失敗할 우려 또한 없지 않으니 周到綿密한 計劃 밑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洞이나 里事務所의 協助를 얻어서 統, 班을 통한 組織을 利用하는 것이 가장 安全할 것입니다. 이 系統을 通해서 所藏된 圖書의 目錄을 事前에 보내어 申請을 받아 定해진 計劃下에 巡迴制로 해 나가는데 專門書籍은 除外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貸出과 回收 過程에서 錯誤가 없도록 세심한 注意가 必要합니다.

運搬方法도 洞이나 里의 協助를 얻는 方向으로 해 나가되 如意치 못하면 自轉車와 리아카 이것도 안되면 지게라든가 지고서 洞里의 家家戶戶를 찾아다니자는 것입니다. 勸誘하는 方法은 “읽고 싶은 것이라도 있으시면……”하는 程度로 가볍게 그쳐야지 그 이상 “이것을 읽어 보쇼”하는 식으로 勸한다면 도리어 逆效果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미치지 못한 洞이나 里에는 마을 文庫를 支援해서 間接的으로나마 뒷받침 해 주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 될 것입니다.

② 職場巡迴文庫

이것은 家庭巡迴文庫 보다 모든 節次나 方法이 좀 수월하겠읍니다. 그 職場의 機關長과의 相互 約定된 計劃下에 圖書를 貸與해 주고 回收해 오면 될 것입니다. 留意할 것은 그 職場의 性格을 잘 알아서 一般的인 圖書 外는 貸出圖書의 主題를 잘 決定해야 하겠읍니다. 例로서 女職工이 많은 工場이면 家庭, 料理, 編物, 手藝에 관한 것이 좋겠고 또 教導所 같으면 在所者들을 위해서 宗教書籍, 教養訓, 人生訓集 등이 좋을 것입니다.

③ 移動文庫

移動文庫하면 外國에서는 自動車文庫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遼遠하니 運搬은 역시 自轉車 아니면 리아카에 依持하는 수 밖에 없겠읍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天幕이라도 쳐놓고 내고장의 文化 向上을 期한다는 奉仕精神으로 臨해야 할 것입니다. 資料는 되도록 短篇的인 것, 內容이 쉬운 읽을 거리, 새로운 消息 程度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設置場所는 時期에 맞춰서 名所 같은 곳이 좋겠고, 어린이 놀이터, 公園, 여름철에는 물가, 큰 느티나무 밑 그리고 郡廳 所在地나 그 以下の 小地域에서는 5日마다 돌아오는 장날을 利用해서 空地에다 設置하는 것도 큰 成果를 거둘 것입니다. 장날에는 閉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當分間 繼續해 나간다면 얼마 안가서 分明히 住民들로부터 圖書館에 대한 信賴와 支持를 받을 것입니다.

5. 씨어클 活動과 讀書運動

圖書館에서 씨어클 活動을 支援하거나 主管하는 것도 圖書館을 利用해서 知的 開發을 圖謀하고 圖書館 活動을 새롭게 認識하게 하여 住民들로 하여금 이에 呼應해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方便이라고 하겠읍니다.

씨어클을 組織하는 제일 쉬운 方法은 圖書館을 자주 찾아주는 利用者들로 構成해서 ○○讀書會, ○○親睦會, 아니면 그 館名의 첫자를 따서 ○國會와 같은 名稱을 내걸고 活動하면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興味 本位로 모임을 가져서 점차로 讀後感 發表나 共同의 問題, 혹은 特定 主題를 놓고 討論하는 모임을 갖게 하거나 詩畫展이나 기타 特異한 行事를 主管하도록 支援하며 또는 圖書館 職員과 함께 圖書館 PR作戰에 參與토록 하면 큰 展示 效果를 거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모임으로써 “○○圖書館 ○○讀書會”라는 것발을 내걸고 내 고장을 청소한다든가,

가벼운 運動을 한다든가 또는 리크리에이션의 一環으로 登山大會나 낚시大會 같은 것을 갖는다면 各會員의 情緒의인 面이나 健康을 위해서도 좋겠거니와 外觀上으로도 남의 눈을 끌게 되어 “저 모임은 圖書館中心으로 이루어진다”는 所聞이 나 돌게 될 때 그 地域住民들은 圖書館의 活動狀況을 羨望하게 될 것이고 圖書館의 事業을 支持하며 呼應해 올 것이니 상당한 效果를 얻게 될은 自明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各種 團體 즉 農業協同組合, 青年團體, 在鄉軍人會, 4H클럽, 婦女會, 義勇消防隊, 教會등을 통해서 圖書館 事業과 連結시켜 圖書館 中心으로 하는 새어울 活動을 多樣하게 展開해 나아갈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圖書館에서 資料를 提供해 준다는 圖書館의 奉仕活動은 結局 讀書運動을 展開한다는 것과 相通되는 말일 것입니다. 精神生活을 豊足하게 發展시키는데 必要한 糧食이 知識이라면 이 知識을 攝取하는데는 讀書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大概의 사람들은 책을 “읽을 時間이 없다” “趣味 없다”로 一貫하며, 讀書를 한다는 것이라야 겨우 新聞을 펼쳐 보거나 大衆雜誌를 뒤적이는 程度에서 그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讀書를 통해서 얻어지는 크나 큰 利得을 認識케 하고 讀書에 대한 새로운 關心과 必要한 느낌을 갖도록 刺戟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인 것입니다. 이것은 國民全體의 知識水準과 結付되는 것이고 諸般 條件이 너무나 附合되지 않는 關係로 積極的으로 運動을 展開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애 우리가 할 수 있는 一面만을 살펴 보겠습니다. 一次的으로 前述한 家庭巡迴文庫나 職場文庫를 土臺로해서 漸次的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最適한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빠르고 效果있게 할 수 있는 한가지는 各種 團體의 會員 중에서 冊을 좋아한다거나 特別히 關心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接近을 꾀해서 讀書運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案内하고 趣味나 興味本位로부터 始作해서 繼續 讀書를 할 수 있도록 會員에서 會員으로 無限하게 展開해 나가도록 引導하는 方案이 있습니다.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恒常 冊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人間生活은 讀書로 始作해서 讀書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強調하면서.

6. 文化行事 主管, 誘致

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의 文化 Center로서 그 地域의 教育機關, 言論報道機關, 各種 文化團體, 社會團體들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團體에서는 수시로 文化行事를 開催 또는 後援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行事를 圖書館에서 舉行하도록 積極 誘致해 오

거나 圖書館 自體에서 主管해 보도록 努力해보 자는 것입니다. 行事의 種類로서는 講演會, 座談會, 讀後感發表會, 研究發表會, 展示會, 雄辯大會, 音樂會, 料理講習會, 書藝나 美術大會, 寫眞攝影大會, 體育大會에 이르기까지 後援 내지 主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場所를 貸與해 줌으로서 이러한 機會에 圖書館에 대한 認識을 좀더 높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文化行事 하면 宜當 圖書館을 聯想하도록 하여 圖書館 事業에 새로운 覺悟로 追從해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公共圖書館이 指向하는 目標을 向해서 活潑히 前進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社會運動의 거름이 되게 하여 文化의 向上으로 치닫는 내 고장이 되도록 우리는 온갖 精力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7. 어린이圖書館과 主婦閱覽室

圖書館法 第18條 2項에 “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部를 두어야 하며……”라고 義務規定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全國을 통해서 不過 몇箇館을 除外하고는 어린이를 위한 讀書施設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施設이 貧困하다 하더라도 다만 몇席이나마 어린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책 읽는 習慣을 길러주고 情緒의인 育成으로 새로운 世代를 길러준다는 것은 우리들의 當然한 義務인 것입니다.

大部分의 既成世代가 어려서부터 圖書館의 惠澤을 받아보지 못하면서 자라는 惰性 때문에 圖書館을 알지 못하고 또 敬遠視하는 큰 原因이라는 것을 勘案할 때 이는 重大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讀書施設을 마련해주고 案内해 줌으로써 圖書館을 알고 자라나며 利用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成長해 갈 때, 우리 圖書館人들이 부르짖는 圖書館事業의 目的達成에도 그만큼의 成果를 더 가져온다는 것은 자연스런 結果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어린이를 위한 讀書施設을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讀書하는 習慣을 길러주어 어린이는 언제나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어린이 圖書室에서 健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引導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결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奉職하고 있는 鍾路圖書館에는 國內唯一한 主婦閱覽室을 創設해서 魅力的이고도 安樂한 施設을 갖추어 無料公開함으로써 많은 主婦들로부터 好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 圖書館이 다 이렇게 따로 施設하거란 어려운 일이겠고 事情이 許諾하는 대로 主婦閱覽室을 어린이圖書室과 한

방에 마련해 주는 것도 理想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손을 맞잡고 圖書館을 찾아와서 어린이는 偉人傳記나 童話冊을, 엄마는 家庭教育에 關한 冊을 보며 母子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想像만 해도 흐뭇한 마음 禁할 筈 沒다 하겠읍니다.

五. 맺는 말

지금까지 公共圖書館의 大衆化 方案과 이에 따른 問題點에서 저의 偏見을 살피드렸읍니다라는 議題의 核心과 實際의인 解決의 具體案을 充分히 말씀드리지 못했음을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當面한 여러가지 與件으로 보아 힘이 없기 이를 데 없는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現 社會가 賦果시켜 준 무겁고도 廣漠한 새로운 使命을 完遂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完全한 精神武裝으로 圖書館을 双肩에 걸머지고 加一層 奮發해서 一路邁進하며 특히 大衆化를 위해서는 創意와 熱意, 勇氣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꾸준히 開發해 나아가갈 때 우리 圖書館界에도 받드

시 曙光이 비쳐 올 것을 저는 確信해서 말씀드립니다.

敷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開催하는 圖書館大會가 形式的인 年例行事로 그쳐서는 안되겠읍니다. 하나의 觀光客으로서 왔다갔다 하는 似而非 圖書館人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지 두렵읍니다. 이번 淸州大會야 말로 우리의 目標達成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어 가지고 돌아가서 記憶에 남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제가 말씀드린 大衆化 方案에서 한 가지 만이라도 꼭 實踐에 옮겨 보자고 다시 한번 堅決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고장 곳곳에서 圖書館을 中心으로 文化의 불길이 쭉쭉 타오르게 하여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圖書館에 갔다 오셨읍니까?”, “당신은 圖書館의 冊을 얼마나 보셨읍니까?” 하고 人事를 나누는 날이 머지 않은 將來에 반드시 우리 社會에 찾아 오기를 다 함께 祈願하며, 우리의 價値있는 努力, 그리고 피와 땀의 結晶이 人類社會의 永遠한 光明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前進해 나아가시십시다.

이 달의 도서관 역사(한국)

1 月

- 府立 仁川圖書館 開館(1923年)
- 開城에 博物館 設置(圖書館 併設)(1931年)
- 大建神學大學 圖書館 設置(1962年)
- Peabody 教育使節團 主催로 慶北의 國民敎校 圖書館 擔當敎師에 대한 兒童圖書館 講習會 開催(1962年)
- 1963年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國立中央圖書館 機關誌가 「도서관」으로 改題되어 續刊(1966年)
- 1日 國立圖書館에서 發行하는 館報를 11號부터 文苑으로 誌名 變更(1947年)
- 海軍醫務團 圖書室 設立(1953年)
- Douglas, Mary P. 著, 金泰律譯 「司書敎師 엔드북」 出版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6집) (1961年)
- 忠南地方公務員敎育院 圖書室 設立(1962年)
-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出版(1964年)
- 麗水市立圖書館 設立(1965年)
- 原州大學圖書館 設立(1965年)
- 3日 李載喆 編 古書分類法原典 出版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7집) (1966年)
- 4日 亞細亞財團 後援, 文敎部 및 韓國圖書館協會 共同 主催로 31日까지 慶北地區(大邱에서), 忠南地區(大田에서), 全南地區(光州에서) 등지에서 冬季司書敎師 講習會 開催 (1966年)
- 5日 全南道敎委會 主催로 14日까지 道內 中高等學校 司書敎師講習會 開催(1965年)
- 6日 全南道敎育委員會 主催로 15日까지 道內 中高等學校 敎師에 대한 司書敎師 講習會를 全南女高에서 開催(1964年)
- 7日 國立中央圖書館 參考圖書室 「百科의 집」을 開設하고, 電話나 書信에 의한 參考奉仕를 하다.
- 10日 朝鮮(現 韓國) 商業銀行圖書室 設立(1948年)

- 第7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中央公報館에서 開催 (1961年)
- 12日 康津郡立圖書館 設立(1965年)
- 13日 全南敎委會 主催로 16일까지 道內 國民學校 敎師에 대한 學校圖書館敎育講習會를 全南敎育研究所에서 開催(1960年)
- 16日 圓光大學圖書館 設立(1948年)
- 忠南地區圖書館協會 北部地區 學校圖書館部會 主催로 18일까지 國民學校 敎師에 대한 司書敎師講習會를 天安農業高等學校에서 開催(1964年)
- 18日 綜合接護院圖書室 設立(1963年)
- 19日 第9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中央敎育研究所에서 開催(1963年)
- 20日 忠南敎委會 主催로 27日까지 各 市道 獎學士 및 國民學校 敎師에 대한 司書敎師講習會를 公州師大부속高校에서 開催(1964年)
- 全南敎委會 主催로 29日까지 全南道內 國民學校 司書敎師講習會 開催(1965年)
- 21日 慶北道 主催로 31日까지 慶北道內 中高等學校 敎師 및 各級 圖書館 職員에 대한 圖書館講習會를 慶北大學校 圖書館에서 開催(1963年)
- 24日 第10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서울大學校齒科大學에서 開催(1964年)
- 25日 第4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國立圖書館에서 開催(1958)
- Akers, Susan Grey 著, 金重漢 譯 「간이도서관자료목록 특집」 出版(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3집) (1960年)
- 第6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中央公報館에서 開催 (1960年)
- 安永柱 著, 「韓國에 있어서의 大學圖書館奉仕의 效果에 關한 研究」 出版(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6집)(1965年)
- 28日 서울文理師大(現 明智大學) 圖書館 設立(1956年)
- 第8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를 中央敎育研究所에서 開催(1962年)
- 29日 富川郡立圖書館 設立(1964年) (20面으로 繼續)